

광주 도심 곳곳 ‘노상 술판’...방역 사각지대 전략

염주체육관 확진자 발생에 시민들 집단 감염 우려
야외음주 관련 민원신고 잇따라...단속 강화 시급

추석 연휴 기간 수백명이 몰린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야외 잔디밭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점 등이 밤 10시에 문을 닫자, 20~30대 청년들이 도심 곳곳에서 야외 술판을 벌이면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염주체육관 야외 잔디밭에 방문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0시까지 지인 2명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체육관 매점에서 구입한 술과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주체육관 야외 잔디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100~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밤 10시를 전후로 모여 다음날 새벽까지 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광주시와 서구 등에는 이 기간 야외 음주와 관련한 민원신고가 매일같이 수십 차례 접수됐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서구와 경찰은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야외취식 금지’는 ‘행정명령’이 아닌 ‘수칙’인 탓에 강제 해산하지 못하고 계도 활동에 그쳤다.

방역당국은 관리주체인 시 체육회 측에 차량 통제 등을 건의하고 사전 계도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체육관 인근에 사는 주민 이모(31)씨는 “최근 몇 주간 이곳 잔디밭을 찾는 발길이가 끊이지 않았다”며 “배달 오토바이들도 많이 다녔고, 산책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 마시며 고성방가를 일삼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봤다”며 “이곳에서 노상 술판을 벌인 사람들이라면 다른 데



사회적거리두기로 식당과 술집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가운데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내 잔디밭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라고 안 갔을 리 없다.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시민 임모(27)씨도 “추석 당일 수차례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했지만, 그때 뿐이

었고 심지어 경찰의 해산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일회성 계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곳 염주체육관뿐 아니라 도심 야외 시설 곳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북구 전남대학교 대운동장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 공원 또한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간밤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술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었다.

무분별한 노상 술판 행태에 시민 김모(42)씨는 “굳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쳐야겠느냐”며 “아와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빚은 사태다. 조속히 야외 음주에 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방역수칙 강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법원, 붕괴참사 ‘부실 철거’ 재판 병합 결정

철거 원청·하도급 8명, 업체 3곳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시 부실 철거에 개입한 공사 관계자들의 재판이 병합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감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 등의 재판을 형사11부로 병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부상 8)을 사상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 참사 수사는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이뤄졌다.

그러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의 재판은 하나로 묶이지 않고 합의부 1곳(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에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해당 재판부에 모두 요청했다.

이대로 재판이 계속되면 증인신문 대상이 겹치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등 재판 절차의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도 실제적 진실 규명과 양형 형평성을 위해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약 3주 만에 병합 결정을 내렸다.

형사11부의 다음 재판은 애초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 병합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수기자

‘수사 기밀 누설’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나 관련자 입견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경위가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으나, A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현직 판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판사로 확인됐다. A씨가 22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취업 두 달 만에 회삿돈 2천여만원 빼돌린 20대 벌금형

점심시간에 경리직원 OTP카드 훔쳐 계좌이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나주의 한 회사 운영자금 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점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동수기자

광주·전남 추석 연휴 5대 범죄 줄었다

전년 비 112신고·교통사고 감소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지역 5대 범죄와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5대 범죄와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추석연휴 대비 감소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 상태를 유지했다.

광주는 절도나 성범죄 등 5대 범죄는

7.9%, 전체 112신고는 9.3% 감소했다.

또 추석연휴 광주지역 교통량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일평균 1.9% 증가, 성묘객은 33.3%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는 16.9%, 부상자 43.9%, 음주교통사고 87.5% 줄었다. 다만 가정폭력신고는 하루 평균 6.3% 증가했다.

전남은 전년 대비 범죄 신고가 3.3%, 가정폭력신고는 14.7% 줄어든데다, 교통사고도 31.6% 감소했다.

이는 경찰이 추석 연휴를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력을 집중

한데 이어 금융기관과 다세대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혼잡 예상 지역의 교통 소통관리와 사고다발 지역 중심으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점도 한 몫 거들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피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추석 이후에도 주·야간 상시 탄력적 스톱이동식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 집중국

롯데 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 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커자씨 교회

보훈 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힐밭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CMYK